

읍·면 재생활성화 권역별 균형발전 '시동'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국비 236억 확보 취약지 개선 생활 밀접 기반 시설 확충 중점 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동부권 5개 읍면 재생활성화를 추진해 권역별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23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7억원을 확보하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활성화 사업에 나선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337억원 규모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동부권 5개 읍·면(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 다도면)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나주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시범지구에 참여하며 사전 준비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시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5개 농촌공간계획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선도적인 모델 구축에 주력해 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주거, 정주 여건,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농촌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22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시는 2021년에도 농촌협약에 선정돼 현재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2026년까지 총 32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번 동부권 중심의 농촌협약 사업 선정으로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 개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시는 연말까지 기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농식품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나주시장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집행에 돌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동부권 농촌협약과 영산강변 생활권 사업을 양측으로 삼아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농촌, 활력이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시민 문화기획자 양성 '나주곳간' 운영

선착순 20명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문화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로컬 기획학교 '나주곳간'을 운영한다.

나주시문화재단(대표 김찬동)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 중심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만드는 로컬 기획학교' '나주곳간'을 개설하고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교육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곳간'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실험과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직접 발굴해보는 입문형 프로그램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문화 활성

화 방안으로 기획했다.

교육은 오는 7월2일부터 8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문화기획 이론 및 우수 사례 강연(3회), 팀별 프로젝트 기획과 현장 실습(4회), 성과 공유회(1회)로 구성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나주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전문 멘토단의 기획 자문을 비롯해 소정의 활동비, 수료증 발급(80% 이상 출석 시), 차년도 재단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가 지난 14일부터 도자기공예 체험 등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부르미'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이화림'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생태 복원 성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부덕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이화림'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생태 정원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2025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민간정원 '이화림'이 우수정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화림은 2005년부터 20여년간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원으로 특히 '버려질 뻔한 나무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생태적 가치로 큰 주목을 받았다.

주택 철거나 조정 변경으로 뿌리 내릴 곳을 잃은 나무들은 이곳에서 제2의 생명을 얻었고 정원주의 손길 아래 오랜 세월 사랑받으며 성장해 왔다.

나주=김용의 기자

이러한 이야기를 품은 이화림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가꾸는 생태 복원형 정원으로 평가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얻었다.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주최해온 정원문화 확산 사업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해 정원관광 지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총 40곳이 응모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이 우수정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정원에는 상장과 현판, 포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민간정원 지정 기회도 주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화림의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시민들이 이화림을 찾아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부덕동에 위치한 카페정원 '이화림'. **나주시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부르미' 운영

도자기 공예 등 5개 프로그램

전라남도 나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학습 부르미'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습 부르미'는 장애인이 원하는 강좌를 거주지 근거리에서 개설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학습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학습 그룹이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

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학습 부르미'는 지난 14일 수중운동치료(어반수영장 빛가람점) 강좌를 시작으로 도자기공예(게토333 예술인마을 도예공방), 토탈공예(남평읍 새벽동산의 집), 가죽공예(대호동 대방노블랜드 어깨동무), 천연화장품 만들기(중앙동 나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25

개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습 부르미' 프로그램은 2025년 추진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권 내 근거리에서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 강의를 개설하고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문화기획 교육 'Round N' 참가자 모집

3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예술인과 문화활동가의 창작 역량 강화와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25 지역문화 예술인 및 활동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Round N'을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가의 창작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2025년 지역문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Round N'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2일부터 8월13일까지 총 5회차로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운영하며 참여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Round N'은 나주(Naju)의 'N'을 기반으로 '네트워크(Network)'와 '새로움(New)'을 함께 담은 명칭으로 나주 예술인의 협업과 실천을 위한 순환적 창작 구조를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나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 예술인, 신진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활동가 등 20명이며 참가자는 네트워킹, 지역자원 리서치, 공동기획안 구상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습형 기획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7월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9일 문화기획 개론 및 사례 연구, 7월16일 지역 리서치 및 자원조사, 7월30일 기획안 구상 및 실천 워크숍, 8월13일 성과 공유 및 결과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나주시문화재단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와 지역 내 문화공간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링크 및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